

2026. 01. 22 (목)

### 채권분석 Note - 지지대

원달러 환율 하락세 없이는 채권시장 강세 전환 어려움.

정부와 한은 정책 공조 기대 낮음. 국경 편성 가까워져도 금리 인하 가능성 제한적.

통상적으로 장기 국채의 기간프리미엄과 환율은 역의 관계를 보임.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조세가 보이고 있음.

때문에 환율 하락세를 좀 더 지켜봐야할 상황.

### 경제분석 Note - GDP 쇼크와 추가경정예산

3~5월 중 20조원 내외 추가경정 예산.

작년 8월 당시 2026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 23억 7천 이었으나

현재 357조원. 덕분에 늘어난 법인세 등의 세수 증가로 세원 여력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 주된 활용처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물가 대응에 즉각 활용될 것.

### 경제분석 Note - NPS 해외투자 비중과 환율

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 조정된다면 기존 경조 대비 달러 수요 축소.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 열거 자산별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논의 예정.

외환 시장 수급 안정화 효과를 고려해 해외투자 비중 줄이고 국내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 전개될 것 예상.

2026. 01. 23 (금)

### 계량 Note Ideas - 외국인 지분율과 심슨의 역설

외국인 지분율 전고점 도달과 '심슨의 역설' 관점 해석.

2021년 이후 외국인 지분율 최고 수준 도달. but, 국가 수급 가능성 존재.

심슨의 역설 - 복본의 비율과 전체의 비율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현상.

복본 외국인 지분율은 그대로지만, 전체 외국인 지분율 증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 ↑.

\* 중국 - 민간자본 활성화. 첨단제조/인프라 중심 투자 예상. 5개년 계획의 시작.

### 채권분석 Note - 1월 FOMC Preview.

상반기 미국 채권시장, 통화정책보다 미국 트럼프 정책 민감도 높을 전망.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 전망은 금리 동결 후 플랫 흐름 예상 근거.

FOMC 이후 정책 불확실성 증감 여부 파악하면서 플랫 전환 시점 타진 근거 필요.

1. 25

증권사들이 작년 증시 상승 고점 기대치를 올해 들어서 수정했다. 20일 기준으로 증시가 12일 연속 상승하더라도 하고

23일에 코스피 5000을 장중에 달성 하기도 했다. 전반적인 지표들이나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여전히 상승여력이

남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무래도 최근 AI 발 기술 관련 주들 로봇이나 방산·반도체 등 대형 기업들이

저평가된 주식들이 주가를 정상화 하고 오히려 고평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단기 과열된 주식 시장에서

확실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상승 여력이 있는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고 저평가 되어 있으며

주주 이익 환원이나 순환매 이익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을 목표로 해야할 것 같다.

이번주 관심 섹터는 지주사 (KB금융 등).

이번주 관심 종목은 여전히 삼양식품.

원전·에너지·인프라 관련도 상승 가능성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간이 걸릴 듯.